



7장

온전하신 대제사장

제 7 장

온전하신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시고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옛 제도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바울은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직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으로 이미 변경되었고, 의문의 율법은 폐지되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자 하였다. 그는 현재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분을 대신하여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역설하기 위해 멜기세덱을 흥미롭게 등장시킨다.

멜기세덱은 흥미진진한 인물이다. 살렘 지역의 실제적인 왕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레위인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에게 십일조를 드리고 그로부터 언약을 가진 자를 대표하여 축복을 받았다. 아직 레위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언약을 가진 민족의 대표로 십일조를 드린 것이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도, 또한 레위인들보다도 우월하였다. 게다가 시편에는 메시아를 가리켜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 (시 110:4)였으니 과연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레위의 제사장 직분보다 뛰어남이 입증된 것이다.

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대제사장이 되셔야 했는가?

그것은 옛 제사장 직분과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 (7:19)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따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대제사장이 되셔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것이다. 게다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 (7:24)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성소로 달려가 그들의 죄 사함을 얻고 완전한 구원을 맛보아야 하였다.

- A. 히 7:1~10, 레위보다 뛰어난 멜기세덱의 반차
- B. 히 7:11~19,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과 율법은 사람을 온전하게 하지 못함
- C. 히 7:20~28, 믿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A. 레위보다 뛰어난 멜기세덱의 반차(7:1~10)

- 1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 2 “아브라함이 일체 십분의 일을 그에게 나눠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왕직과 대제사장직을 예표(豫表)하는 인물로 그 인물됨이 특별하게 고안되었다. 그는 ‘의의 왕’ 이요 ‘평강의 왕’ 으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실 직함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의미심장한 인물을 살펴보는 것은 구속의 과학을 이해하는데 있어 흥미진진하고도 중요하다.

① 멜기세덱의 등장배경

아브라함 때에 시날 지역의 네 왕들이 올라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왕들과 전쟁을 벌였다. 이 전쟁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이 패하였다. 이 전쟁에서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 가게 된다. 아브라함은 훈련받은 자 삼백십팔 명을 데리고 가서 사로잡힌 조카를 비롯한 부녀와 인민, 약탈당한 물건을 다시 되찾아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마중 나와 아브라함을 맞이하였다. 이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전리품 중에 가장 최고의 것을 취하여 십일조를 그에게 바치었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였다.

②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표상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창 14:18).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표상하는 인물이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십일조를 바침으로 그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하였다.

그가 가지고 나온 떡과 포도주는 희생제물 되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멜기세덱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참된 양식을 제공해 주시는 메시아를 표상하였다. 그 근거는 시편에서 메시아를 예언하는 대목에 나와 있다.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시 110:4).

③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왕직을 표상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었다. 그의 이름의 접미사 ‘기세덱’은 ‘의(義)라는 뜻을 지니었다. 스가라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에서 “네 왕이 네게 임하니 그는 공의로우며” (슥 9:9)라고 하였다. ‘공의로운’은 ‘의로운’과 같은 뜻이다. 예수님은 의의 왕이셨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 즉 평화의 왕이었다. 이사야는 그를 “평강의 왕” (사 9:6)이라고 불렀다.

3. “아비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당시 예루살렘의 옛 이름인 ‘살렘 지역’에 거하는 소왕국의 왕이었다. 그는 하나님을 신실히 경외하던 실존 인물이었다.

“헤브론에서 20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한 장소를 장래 왕국의 수도로 선택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이곳을 살렘이라 불렀다. 이 부근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충성을 입증해 보였다. 이곳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8백년 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집이 있던 곳이다.” 112)

방불하여 - 수동태로 ‘~ 같이 만들어졌다(made like)’는 뜻이다.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을 예표하는 화신이요 모형으로 고안된 인물이다.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특별한 의미로 그리스도를 표상하기 위해서 고안된 직분이다.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113)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 멜기세덱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었다. 성경은 그에 대한 족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생명의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다. 이것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 (7:25) 하시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위한 것이다. 멜기세덱을 통하여 교훈하신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112) 부조와 선지자(Ellen G. White, Patriarchs and Prophets), p. 703.

113) 복음주석(White, Ellen G, Bible Commentary), 히 7:17.

“제사장 멜기세덱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은 그리스도이셨다. 멜기세덱이 그리스도는 아니었지만 그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목소리였고 아버지 하나님의 대표자였다.” 114)

4.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략물 중 좋은 것으로 십분의 일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5.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좇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십분의 일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아브라함은 전리품 중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하여 십일조를 드렸다.

6.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십분의 일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7. “폐일언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뱀을 받느니라”
8.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십분의 일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
9. “또한 십분의 일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십분의 일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10.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

114) 복음주석(Ellen G. White, Bible Commentary), 창 14:18-20.

리에 있었음이니라”

멜기세덱이 아론보다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 ① 레위의 조상 아브라함이 십일조를 바침(5)
- ② 아브라함은 약속을 얻은 자로서 축복을 받음(6, 7)
- ③ 멜기세덱은 영원하여 결코 죽지 않음(8)
- ④ 아브라함은 레위의 조상으로서 십일조를 드림(9)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인물이었다. 실제 아론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십일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제공하신 약속이 그의 후손들에게 전달되었다는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대표성을 갖는다는 말이다.

B.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과 율법은 사람을 온전하게 하지 못함(7:11~19)

11.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킹제임스 성경] “그러므로 만일 레위 계열의 제사장 직분으로 온전해질 수 있었다면(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음이라) 굳이 아론의 계열에 따라 부르심을 받지 않고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라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있었겠느냐?”

[제사장 직분의 목적]

백성으로 하여금 ‘완전함’ (헬, 텔레이오시스, perfection)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의문의 율법 아래 제사장은 사람에게 완전함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다만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뫼학선생” (갈 3:24)의 역할을 할 뿐이었다. 그러므로 완전함을 얻을 수 있는 한 다른 제사장을 필요로 하였다. 제사장 안에서 우리가 온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 직분의 목적이다.

12. “제사 직분이 번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번역하리니”

(왜냐하면) 레위 자손의 제사 직분이 변경됨에 따라서 율법에도 변경이 일어나야 한다. 레위 자손이 제사장이 된다는 출신 규정, 레위 자손의 의무, 의복, 제단 일 등 많은 것들에 변경이 일어나야 한다.

13.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14. “우리 주께서 유다로 좇아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다른 지파 - 다윗 가계. 유다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올 것을 성경은 예언하였다(미 5:2; 마1:1; 막 10:47-48; 눅 3:33; 롬 1:3; 계 5:5).

15.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16.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좇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 된 것이니”

17.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육체에 상관된 계명 -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은 자손에게 계승(출 29:29, 30; 민 20:26, 28) 되었으며 20~50세까지 성소 봉사를 하였다(대상 23:24-27; 민 4:47, 8:24-25).

그러나 그리스도는 레위의 반차를 좇지 않으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제사장이 되셨다. 실제로는 자신의 무궁한 생명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명으로 대제사장이 되셨기에 영원하고 최종적인 대제사장이 되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롬 1:4)신 것처럼, 그는 또한 그의 능력으로 제사장이 되셨다. 그 능력은 바로 죄인에게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다.

18. “전옛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하므로 폐하고”

연약하며(헬, 아스데네스) - ‘무력한’, ‘불완전한’ 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본래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라 계명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희생제도 자체가 구원 얻는 수단과 목적이 될 때 의문의 율법은 무력하다. 또한 반복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무익하다. 율법의 한시성도 문제가 된다. 희생제물이 예수님의 몸으로 대치된 이후 의문의 율법은 연약하며 무익한 것이 되었으므로 폐지되고 말았다. “원수 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엡 2:15).

19.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의문의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을 완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율법 자체는 아무것도 온전하

게 할 수 없다. 의문의 율법은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죄의 용서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였다. 그러나 죄인에게서 죄를 그치게 하는 데는 무력하였다. 다시 말해 죄인으로 하여금 죄 없는 완전을 이루게 하는데 무력하였다는 말이다. 그러나 희생제물이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죄를 깨닫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깨달아 더 좋은 소망이 생기게 된다.

[구약의 속죄제를 연구하라!]

제물을 드리는 자가 제사장이든지 온 회중이든지, 족장이든지 평민이든지 부지중에 범죄한 사실을 깨닫게 되면 희생제물을 가지고 성소로 왔다. 대제사장이나 회중이 범죄 하면 수송아지를 희생 제물로 드렸다. 족장은 숫염소를, 평민은 암염소를 속죄 제물로 드렸다. 하나의 의례적인 절차가 아니었다. 오직 죄를 깨달을 때에만 그 제물은 가납되었다. 무심중에 맹세한 죄도 속죄제를 드려야 하였다. 성물을 범하였거나 도둑질한 것은 1/5를 더하여 배상해야 하였다. 회개는 구체적이어야 했고 진지해야 했다. 그러나 그 죄인의 가납하심과 죄의 용서가 제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속주를 바라보는 데에 있었다.

더 좋은 소망 - 죄인은 율법 대신에, 그리고 레위의 제사장보다 더 좋은 소망을 붙잡아야 했다.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인을 온전하게 하신다는 소망을 붙잡아야 했다. 11절의 설명처럼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은 온전함을 이룰 수 없었기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

C. 믿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7:20~28)

20.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21.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의 임명에는 하나님의 맹세가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은 하나님의 뉘우치지 않으실 맹세로 된 것이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기에 때문에 맹세할 필요가 없었지만(3:11; 4:3; 6:17) 맹세로 보증해 주셨다.

이 맹세는 언제 되었는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구속의 경륜을 세우실 때 그 언약은 맹세로 보증된 것이다. “여호와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뿔기세택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시 110:4).

22.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더 좋은 언약의 보증 -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하나님의 맹세로 확고한 승인을 얻었고 뿔기세택의 반차가 보여주는 것처럼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보증인이 되셨다.

23.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있지 못함으로되”

24.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 - 새 언약 아래서의 율법도 바뀌지 아니한다. 레위 제사장 직분은 유한하지만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영원하다. 요세푸스는 아론의 시대로부터 주후 70년까지 83명의 대제사장이 있었다고

기록하였다.

[죄 없는 완전 (7:25~28)]

25.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온전히 구원 - 이것은 백성이 “온전함” (7:11)을 이룰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죄로부터의 완전한 구원을 의미한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온전함을 얻을 수” (7:11) 없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할 수 있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 (7:19)하지만 그리스도는 하신다는 말씀이다. 다음 절부터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다.

26.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대제사장]

- ① 거룩하다 - 성화되신 분, 완전하신 분
 - ② 악이 없다 - 순결하고 악을 도모하지 않는 분
 - ③ 더러움(결점)이 없다 - 도덕적 결점, 오점, 죄의 경향이나 성향이 없으신 분
 - ④ 죄인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다 - 사람 가운데 계실 때에 죄 짓지 않으시는 분
 - ⑤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므로 세상 모든 권세나 보좌보다 높으시고 능력 있으신 분
27.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대속죄일 의식을 행하기 전에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야 했다(레 16:11, 15). 해마다 늘 그렇게 반복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셨다.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단번에 하나님께 드리신바 되셨다. 단 한 번으로 충분했던 것이다.

28.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약점을 가진 - 레위 제사장은 죄를 지은 죄인이었고 불완전하고 도덕적 결함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죄인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또한 죽음으로 인하여 항상 함께 있을 수도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온전하게 하셨으며 또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는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율법 후에 - 의식법, 십자가로 종언을 고한 법이다(엡 2:15; 골 2:14).

맹세로 온전케 된 아들을 세우심 -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언약의 조건을 따르시기 위해 인간의 모든 약점을 체휼하셨지만 죄는 없으신 생애를 달성하셨다. 그러므로 인간 대제사장처럼 죄로 인한 모든 결점이나 약점을 지니지 않으신 흠 없는 분이 되셨다. 또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 (7:16) 레위 제사장의 죽음의 한계성도 극복하신 분이셨다.

